**The Problem of History(역사의 문제)**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이 소박한 하얀 정원 의자는 사이먼 후지와라의 작품으로 전쟁에서 살아남은 기념비로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의자는 플라스틱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청동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금속 수요가 많았고, 신사에 있던 대부분의 청동조각상을 녹여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이 의자는 과거 전쟁으로 인해 녹아버린 조각상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나뭇가지들이 끼어들어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들어 올려버릴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아마도 ‘일상용품’으로서 평범하게 숨어 있으면, 미래의 파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로 ‘일상용품’은 1,000년 후에는 무엇을 의미하게 될까요?